

1. 돈 - 17

거래

(去來: TRANSACTION)

“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 (레 25:14)

* * *

1. 하나님이 정하신 공정거래 기준을 준수하라.

사고파는 행위를 일컬어 거래라고 한다. 거래가 형성되려면 먼저 ‘거래기준’이 세워져야 한다. 판매자는 어떤 기준에서 판매가를 매기고, 구매자는 어떤 기준에서 값을 지불해야 하는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거래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약속한 거래 단위들이 있어야 하고, 거래 측정 방식도 제정되어야 한다. 물건의 길이, 높이, 무게, 부피를 말해주는 단위들만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나타내는 화폐의 단위들도 정해져야 하고, 단위와 가치를 측정하는 기구들도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누가 제일 먼저 거래기준을 만든 것일까? 무명의 사람이 창작으로 임의의 단위들을 만든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 동의해 거래가 이루어진 것일까?

성경은 하나님이 거래 기준의 창시자이심을 말한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와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잠 16:11). 하나님이 만드신 기준들은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기준을 부여하셔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향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평가를 내리신 사실에서 확인된다. 하나님이 ‘좋다’고 내리신 평가는 주관적 느낌이 아니고 정확한 기준에 의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평가 기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다. 오직 하나님만 선한(=좋은) 분이시고(마 19:17), 또한 진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엡 4:21). 그래서 ‘좋다’는 평가는 선하신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는 진리가 만물 안에 정확히 적용되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해 주신 것이다. 창조는 임의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정확한 기준과 척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반대로 좋지 않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기준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평가이다. 예를 들어, 성경은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잠 20:23)고 말한다. 거짓 저울에는 진리가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잠 11:1; 20:10 _____

Q. 우리가 ‘거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는 무엇인가?

레 19:35-36 _____

* * *

2. 모든 거래의 기본은 정직이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래를 할 때 두 개의 다른 기준을 자신이 유리한 대로 꺼내어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악행으로 규정하신다(신 25:13-16). 하나님은 사람이 거래를 하기 전에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full and fair)” 기준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거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창조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듯이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이 삶에 임하는 기본자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매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이 ‘거래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공정함(fairness)’만 아니라 ‘온전함(full)’을 함께 강조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삶의 어떤 활동보다 거래에서 최고의 도덕성을 지녀야 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이는 거래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이웃과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이 동의할 수 없는 ‘자기만의 기준’을 고집하거나 ‘거짓 원칙’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관계 파괴자’인 것이다.

신 25:13-16 _____

사교파는 행위는 ‘생명활동’의 기본이다. 그래서 사람이 일상의 매매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사느냐에 따라 ‘생명의 날’이 좌우된다. 하나님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신 25:15)고 약속해 주셨다. 잠깐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거짓 기준을 따르면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장기간 변함없이 공정한 기준을 따르면 생명이 보존되는 것이다.

거래가 정직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일관된 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지만 아니라 거래하는 행위 자체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물건 값을 깎기 위해 물건의 질을 의도적으로 폄하하여 매입한 후 이득을 보았다고 좋아하는 것은 부정직한 거래이다. 말이 마음과 따로 노는 것은 두 기준으로 행동하는 부정직한 것이다(잠 20:11). 또다른 부정직한 거래의 예는 독과점거래나 사재기한 물건의

매도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내놓지 않고, 자기 이익이 극대화될 때 물건을 파는 행위는 사람들의 필요를 불모 삼아 물건을 합당한 가격이 아니라 조작된 가격으로 팔아 이문을 남기는 행위이다. 이런 거래로 돈이 벌릴 지는 모르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기 전이라도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는 행위이다(잠 11:26).

잠 20:10-15 _____

Q.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물건을 헐 값으로 매입하는 것이 성공한 거래일까? 또는 내게는 아무 필요나 가치도 없는 물건을 고가에 팔아 이문을 남기는 것이 성공한 거래일까?

암 8:4-10 _____

* * *

3. 욕심을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죄에 파는 것이다.

부정직한 거래로 생기는 여러가지 폐해가 많지만 거래자 자신이 입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스스로 더러워지는 것이다. 사람이 이익을 얻고 재물이 불어나면 거래의 부정직은 안중에 없고 쉽게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 부정직한 거래로 자신이 더러워진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의 내면을 보기보다 돈 버는 능력과 재주를 부러워하고 재산 증식의 결과를 대단하게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더러워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긴다. 모든 좋은 것은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데(시 85:12; 약 1:17),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기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모든 좋은 것도 공급이 멈춰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재앙을 속절없이 당하는 일만 남게 된다.

미 6:9-16 _____

부정직한 거래로 악을 행하여 더러워지는 것은 스스로를 죄에 팔아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롬 7:14).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인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배신한 대가로 이제부터는 노락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삿 2:13-14). 얻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가장 관계하고 싶지 않은 대적에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삿 2:13-14 _____

거래에서는 부정직만이 죄가 아니다. 인생의 시간표를 '거래 시간표'에 맞춰 짜는 것도 허탄한 생각을 쫓는 것이고, 이것이 거래에서 범하는 큰 '죄'이다. 사실 인생의 모든 활동이 '거래'로 성사된다고

해도 과장된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적은 ‘거래(=장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올 해는 얼마의 이문을 남기고, 1년 후에는 얼마의 매출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자산 규모가 꽤 큰 기업을 만들어보겠다고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죄’이다. 주님의 뜻(=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도 ‘거래를 통해 이문을 남기는 일’을 평생에 목표로 삼는 것은 돈을 숭배하는 ‘죄’인 것이다(약 4:13-17).

약 4:13-17

마지막 시대에 사탄은 세상의 거래 시스템을 장악해서 인류를 통제할 것이다(계 13:16-17).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최대의 핍박은 거래활동의 제약인 것이다. 성경이 사탄의 꾀계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거래를 통한 인생설계에만 안목이 고정되어 있다면 스스로 사탄의 밥이 되는 꼴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종말의 안목이 일상을 지배하는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 지나가는 외형에 마음을 두고 살 것이 아니다(고전 7:30-31).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없어진다. 그 때는 아파트이든 땅이든 원하는 물건을 샀다고 기뻐할 일이 아니고, 물건이 안 팔리다고 근심할 일도 아니다(겔 7:12). 죽음 앞에서 최고의 재산은 ‘구원받은 자신의 영혼’이다(시 49:8). 우리는 세상의 어떤 거래에서도 사거나 팔 수 없는 ‘영혼의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할 재산목록 1 호이다.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공짜’로 얻은 싸구려 물건이 아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을 치러 우리에게 안겨 주신 ‘우주에서 최고 비싼 하나님의 선물’이다(벧전 1:18-19). 이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고,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이 생겼다고 한들 돼지 코에 금 고리일 뿐이다(잠 11:22; 히 2:3).

Q. 나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거래를 통해 ‘이익’을 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가?

잠 23:23; 벧전 5:2-3

* * *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정확한 기준을 두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기준을 먼저 익히지 않고 선부르게 행하는 모든 곳에는 악행이 있습니다. 주님, 진리를 통해 온전하고 공정한 기준을 먼저 배워서 어떤 거래에서도 정직함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진리를 이익의 재료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소중한 선물로 간직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